

인하대 BK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워크숍

2021-2학기 연구진행 및 동계방학 연구계획 발표

일시 2021. 12. 21. (화) 09:30-11:00

장소 비대면 ZOOM

주최 인하대학교 BK21 FOUR 참여대학원생 자치위원회
인하대학교 BK21 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 2021년 1-2학기 연구 실적 및 연구 진행사항1

II. 동계방학 연구계획

1. 이민솔 박사 5차시	11
2. 박옥현 박사 4차시	13
3. 장현정 박사 4차시	22
4. 최수안 박사 3차시	25
5. 김은희 박사 2차시	28
6. 남정연 박사 2차시	32
7. 문희진 박사 1차시	34
8. 서현주 박사 1차시	36
9. 김혜미 박사 1차시	43
10. 이원선 석사 2차시	47
11. 니고라 석사 1차시	50
12. 손효한 석사 1차시	52

BK21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

2021년 1-2학기 연구 실적 및 연구 진행사항 정리

성명	이민솔	학번	22192036
과정	박사과정	차수	5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1학기	① 이민솔·정상우 교수님 - 언택트 시대,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표 개발 - 2021년 인하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BK사업단 다문화교육·민주주의 공동학술대회 - 발표일: 2021년 5월 14일	① 이민솔·박성철.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을 조절변수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829-843. (게재완료) ② 이민솔·문국경.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103-125. (게재완료)
2학기	① 이민솔·정상우 교수님 - 팬데믹시대, 인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방안: 예술인 지원과 문화복지의 온라인상에서 연계를 중심으로 - 인천연구원 - 발표일: 2021년 10월 8일 ② 이민솔·정상우 교수님 -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부산시교육청 - 발표일: 2021년 10월 29일	① 이민솔·정상우. 팬데믹시대, 인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방안: 예술인 지원과 문화복지의 온라인상에서 연계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심사 중: 수정 후 재심) ② 박사논문 수정하여 문화교류 혹은 다문화사회로 단독투고.

성명	박옥현	학번	22201075
과정	박사과정	차수	4차

	학술대회	논문 및 저서 실적
1학기	<p>① 박옥현 단독연구,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ransnational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in the Post-Corona Era 2021. 4. 대구대 공동 국제 학술대회, 2021. 4. 23 - 5. 31.</p> <p>② 박옥현 단독연구, 다문화 전래동화를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방안: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21. 5. 29.</p>	<p>① 박옥현 단독연구,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복지에 관한 국내학술지 연구동향의 탐색적 고찰,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203~228, 2021. 5. 30.</p> <p>② 박옥현 단독연구,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ransnational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in the Post-Corona Era Transnational Higher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Daegu: Ileum BookHouse, 196-213. 2021. 6. 15.</p>
2학기	<p>① 박옥현 단독연구,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 학습(Tandem Learning) 모델,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와 평생학습도시, 강원도 양구군,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강원대/ 2021. 11. 27.</p> <p>② 박옥현 단독연구, 모국 언어문화를 병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해력 향상 방안, 2021 한국독서학회·한국학습장애학회 연합 학술대회 /2021. 12. 4.</p>	<p>① 공동 작품, 내 인생의 이야기- 자서전 글 쓰기, 광명시광명도서관, 2021, 68-77/ 2021. 12. 22(출간 예정).</p> <p>②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학습 모델, 언어와문화, 12월 말 재투고 예정.</p> <p>③ 모국 언어문화를 병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해력 향상 방안, 독서연구 등 12월 말 or 겨울 방학, 투고 예정</p> <p>④ 중도입국 청소년 연구동향-교육문화연구: 오영섭 박사님 공동으로</p>

성명	장현정	학번	22201017
과정	박사과정	차수	4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1학기	① 장현정, 장성민 교수님 - 고등학생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 한국작문학회 국제학술대회 - 발표일 2021.4.24. ② 장현정, 장성민 교수님 - 사회정의 관점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제재 타당성 검토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 발표일 2021.5.29	① 장현정, 장성민 교수님 - 고등학생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 독서연구 - 게재일 2021.5.07. ② 장현정, 장성민 공동연구 - 사회정의 관점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제재 타당성 검토 - 리터러시연구 - 게재일 2021.8.17
2학기	① 장현정, 장성민 교수님 -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 조사 - 한국리터러시학회 동계 학술대회 - 발표일 2021.12.04. ② 장현정, 장성민 교수님 - 소통기반의 다문화교육이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 발표일 2021.12.11	① 장현정, 장성민 교수님 - 소통기반의 다문화교육이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 리터러시학회 투고 심사결과 대기중 - 특이사항: BK 지원서 연구계획 발전시킨 논문 ② 장현정, 장성민 교수님 - 상호텍스트적 접근 기반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 조사 - 특이사항 : 발표 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수정 중 12월 말 투고예정 ③ 장성민 교수와 협의하여 한편 추가

성명	최수안	학번	22202009
과정	박사과정	차수	3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1학기	<p>대회명: 2021 전국 대학 다문화학과 연합세미나 일시: 2021.4.16. 발표주제: 이주여성의 이혼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p> <p>대회명: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New Developments 2021 일시: 2021.6.26. 발표주제: A LIFE-HISTORY CASE STUDY ON SELF-RELIANCE EXPERIENCE OF DIVORCED MIGRANT WOMEN</p>	<p>논문명: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학술지: 여성학연구, 제31권 1호 게재일: 2021.4.30. 저자: 2명(제1저자)</p> <p>논문정보: An Exploring Study on the Linkage Possibility of the Support Policies in Multicultural Famil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학술지: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Vol. 6, No. 1 게재일: 2021.6.30. 저자: 2명(제1저자)</p>
2학기	<p>대회명: 2021 한독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21.11.13. 발표주제: 분리에서 통합으로: 다문화 대안학교 미래 방향 모색 저자: 2명(공동)</p>	<p>▶ 게재확정 논문 논문명: 경기꿈의대학 참여 교수자 수업실행의 행위자성에 관한 질적연구 학술지: 교육문화연구, 제27권 6호</p> <p>▶ 진행중인 논문 ①논문명: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동향 탐색 투고학술지: 다문화콘텐츠연구 게재일: 2021.12.31. 저자: 2명(제1저자)</p> <p>②논문명: 일본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 탐색(12월) 투고학술지: JME 게재일: 2021.12.30. 저자: 1명(단독)</p> <p>③논문명: 공립 다문화대안학교의 통합교육 구상에 관한 질적연구 투고예정학술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게재일: 2022.1.30. 저자: 4명</p> <p>④ 이주여성자조모임관련 현상학적연구</p>

성명	김은희	학번	22211513
과정	박사과정	차수	2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1학기	① 김은희, 김은희 공동연구 -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체성 협상 - 2021 전국 대학 다문화학과 연합세미나 - 발표일 2021.4.16. ② 김은희 - 대학생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8회 국제학술대회 - 발표일 2021.8.20	① 김은희, 김영순 -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정체성 협상을 중심으로 - 게재일 2021.8.17. -BK 지원서 연구계획을 발전시킨 논문임.
2학기	① 김은희, 최수안, 김영순, 최승은 공동연구 - 분리에서 통합으로: 다문화 대안학교의 미래 방향 모색 - 한독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발표일 2021.11.13. ② 김은희, 김영순 공동연구 -역할극 중심 협동학습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상호의존성 경험에 관한 연구 -END 국제학술대회 초록 제출함 -선정되면 2/28 전문 제출해야 함.	① 김은희, 김영순 공동연구 - 다문화와 평화 투고 심사결과 대기중 - 특이사항: 한일차세대학술대회 발표 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투고함. 12월 말 결과 발표예정 ② 김은희, 최수안, 김영순, 최승은 공동연구 - 공립 다문화대안학교의 통합교육적 모색에 관한 질적 연구(가제) - 특이사항 : 한독교육학회 발표 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수정 중 12월 중순 투고예정(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③ 김은희, 김영순 공동연구 - 토론기반 교양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상호문화성 함양을 중심으로 - 게재불가 받음. 수정 후 1월 말 투고 예정 (교양교육연구 or 교육문제연구) ④ 자조모임에 참여한 이주여성 내러티브 : 지도교수님과 공동으로

성명	남정연	학번	22211021
과정	박사과정	차수	2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1학기	① 남정연, 박철우 공동연구 - 결혼이주여성 대상 수필교육을 통한 내면화 사례연구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 발표일 2021.5.29.	① 남정연, 박철우 공동연구 - 결혼이주여성 대상 수필교육을 통한 내면화 사례연구 - 특이사항: 석사논문 소논문문화한 논문 - 한국문화교육학회 재투고 심사결과 대기중
2학기	① 남정연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문식성 함양을 위한 질적 메타분석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 발표일 2021.5.29	① 남정연, 김영순 공동연구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 제공에 대한 사례연구 - 특이사항: 여름방학 연구계획 발전시킨 논문 ② 남정연 - 이혼 경험을 한 베트남 이주여성 생애사 연구 - 특이사항 : 강원대 발표 건으로 계획된 논문 2022년 방학중 투고예정 ③ 황해영 박사님과 공동으로 : 중국이주여성 관련 논문

성명	문희진	학번	22212018
과정	박사과정	차수	1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2학기	① 문희진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적응에 관한 동향 분석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일 2021.11.27.	① 문희진, 손경애 공동연구 -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동화 활용 교육 방안 연구: 촉각형용사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교류학회 투고 예정 - 논문투고 마감일: 2021.12.19. ② 문희진 -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적응에 관한 동향 분석 - 특이사항: 학술대회 발표 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투고 예정 - 현대사회와 다문화학회 투고 예정 - 논문투고 마감일: 2022.01.15. ③ 문희진, 정경희 공동연구 - 사회과 수강과목에 따른 현지 조사 특징에 관한 연구-예비사회교사를 중심으로 - 특이사항: 겨울방학 중 작성 후 투고 예정 ④ 이주여성의 경험

성명	서현주	학번	22212019
과정	박사과정	차수	1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2학기	① 서현주 - 애착불안 아동의 미술치료를 통한 정체성 협상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한독교육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 발표일 2021.11.13.	① 서현주, 최명선 공동연구 - 이문화 성장배경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효과연구 :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 한국문화교육학회 - 게재일 2021.10.27. ② 서현주 연구 - 미술치료를 경험한 애착불안 아동의 정체성 구성에 관한 사례연구 - 특이사항 : 한독교육학회 발표 및 11월 월례세미나 발표 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 중 투고시기 및 학술지 미정 - 강원대 인문과학연구 or 한국문화교육학회 ③ 중도입국청소년 중재프로그램 동향연구-3월, 국제문화교류

성명	김혜미	학번	22212017
과정	박사과정	차수	1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2학기	<p>1. An Ethnography on the Experience of Improvement in Language Ability of Refugees Resettled in Korea (재정착 난민의 언어능력 향상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부산대 공동학술대회 발표 예정이었으나 학술대회 취소됨</p> <p>2.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Solidarity Experienced by Myanmar Students in Korea (미얀마 유학생의 연대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END 2022 초록 제출 후 결과 대기 중</p>	<p>① An Ethnography on the Experience of Improvement in Language Ability of Refugees Resettled in Korea (재정착 난민의 언어능력 향상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자: 김혜미, 교신저자: 박경태 투고현황: JME 투고 후 심사 대기</p> <p>② 재정착 난민의 수용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연구자: 김혜미 진행현황: 4장 작성 중</p> <p>③ 재정착 난민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구자: 김혜미 진행현황: 연구계획서 작성</p> <p>④ 비대면 수업을 통한 상호문화성 함양에 관한 자문화기술지</p>

성명	이원선	학번	22211575
과정	석사과정	차수	2차

	학술대회	논문 실적 및 연구과정
1학기		<p>① 이원선, 정상우 공동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사회전문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이사항: 초안 제출 후 주제 확장 논의 중 <p>② 정훈, 정상우, 이원선 공동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특이사항: 연구 계획 및 연구 참여
2학기		<p>① 정훈, 정상우, 이원선 공동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 2021.09.17. 게재 확정 <p>② 이원선, 장현정, 정상우 공동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 고려인 청소년에 관한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제언(가제) - 특이사항 : 월례세미나 발표 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 및 수정 중, 현대사회와 다문화 학회지 1월 15일 투고예정 <p>③ 방문취업동포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활성화를 위한 제언</p>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이민솔
- 연구과제명 :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역량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간	2021년 1월 ~ 2021년 3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사회적 자본에 관한 전통적 연구가 오프라인 사회에서의 대면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환경이 더욱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이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 디지털 시민성 또는 디지털 시민역량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성은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디지털 시대에서 시민성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시민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관념적인 시민성에서 나아가 청소년에게 교육하고 실제 역량 개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디지털 시민역량 개념을 설정하고,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공감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참여 역량, 윤리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참여, 새로운 윤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시민역량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대한 국면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p>
이론적 배경	<p>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설 간의 대립이 있어 왔다. 시기를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전통적 미디어나 전자우편 발송 정도가 인터넷에 활용의 전부였던 시기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예상보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SNS와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공동체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사회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p>
연구방법	<p>디지털 시민역량,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문화다양성의식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고, 수도권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설문조사하여 응답 내용을 분석한다.</p>
기대효과 및 가설	<p>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역량인 공감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참여 역량, 윤리 역량이 이들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 네트워크,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역량은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전 연구와의 관계	2021년 청소년 관련 연구를 2편 게재하며, 청소년 연구를 이어가고 있음.
박사논문과의 관계	박사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연구의 사회적 기여	그동안 디지털 공간의 특성이라고 여겨졌던 익명성, 공간의 확장성, 관계의 수평성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영향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어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더 늦기 전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성장과정 속에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일정	2021년 1월 박사논문 작성 후 시작 2021년 2월 투고 예정
기타의견	박사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박옥현, 지도교수님
- 연구과제명 :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자원 탐색

연구기간	2021년 5월 - 2022년 2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합류하고 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인 2,216,612명으로 총인구의 4.3%에 달하며(행안부, 2020),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60,056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한다(교육부, 2021). 유형별 다문화 학생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 순으로 많다.</p> <p>한편 다문화가정 부모의 낮은 한국어 능력은 다문화 학생에게 전이되어 이들은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며 학습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기반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는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언어 학습에 있어 학교 요인보다 가정 요인이 큰데, 다문화 학생의 가정 내 한국어 학습을 위한 자원은 열악하다. 이에 다문화 학생의 생태체계 자원을 탐색하여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자원은 어떠한가? 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주변에 존재하는 한국어 학습의 영향 요인에서 지원 방안을 찾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p>
이론적 배경	<p>1. 생태체계 이론</p> <p>생태학 이론은 개인-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에 관심을 갖는다. 예컨대,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개인의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 아동의 발달 또한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국가라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아동 주변의 가족, 친구, 친척, 종교단체,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대중매체 등도 환경으로서 작용하고, 아동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중요한 환경이 된다(조형숙 외, 2013: 121).</p> <p>Bronfenbrenner가 정의하는 인간 발달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지각하고 다루는 방식에서의 지속적인 변화인데,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 첫째, 발달하는 개인은 단순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환경을 재구성하면서 성장하는 역동적인 실체이다. 둘째, 환경도 상호조절 과정을 거치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호혜성의 특성을 지닌다. 셋째, 생태학적 환경의 개념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장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장면들 간의 상호 연결과 개인이 속해 있지 않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까지도 포함한다(이영 외, 2011; 조형숙 외, 013: 123에서 재인용).</p> <p>Bronfenbrenner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5가지의 환경체계가 있는데, 이</p>

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osystem)와 시간체계(chronosystem)를 일컫는다. 아동은 가족처럼 가장 직접적인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근접한 영역으로, 그리고 점점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상호작용을 확대한다.

2. 다문화 학생과 학습 부진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나누는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나뉜다(교육부, 2021). 유형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이 76.3%(122/093명), 외국인 가정이 17.8%(28.536명),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이 5.9%(9.427명)이다(교육부, 2021).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들은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존재하고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심리·정서 상 지원이 필요하다. 중도입국 자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또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들은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편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인데, 이들은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된다(법제처, 2021). 따라서 이들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법제처, 2021), 교육부 등은 이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은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임을 천명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성장기의 고유한 생리적·정서적 특성과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며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은 성장 발달과정 중 부모의 낮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또래보다 저조한 언어발달을 보인다(강진숙, 2009; 김은진, 2018). 또한 미숙한 한국어 능력은 부모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학교생활에서 또래의 따돌림, 낮은 학업성취,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문호환, 2014; 전남희, 2017), 이는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며(김의정, 김애화, 유현주, 2012; 김영순, 이미정, 민기연, 2014), 높은 학교부적응(김영순 등, 2014; 황매향, 고흥월, 김진영, 2010)과 높은 학업 중단, 낮은 진학률로 나타난다.

학습부진(school underachievement, 學習不振)이란 정상적인 지적 능력과 학교 수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주의력 결핍, 학습장애나 학교생활 부적응, 건강 문제, 가정 환경 등의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육 목

	<p>표에서 설정한 최저 수준의 학업성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컨대, 지능 발달 정도는 정상이지만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을 포함하여 교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학습부진아라고 부르는데, 학습부진아는 학교 수업 수행의 잠재력은 있지만, 발달장애나 학습 수행에 필요한 요건 미비 등의 내적 요인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교우 관계 실패 등이 원인이 되는 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교육 목표에서 설정한 최저 수준의 학업 성취에 미치지 못한다(두산백과, 2021)²⁾. 특히 학습부진은 학습지진(slow learn, 學習遲進), 학습장애(learning disorder)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기도 하지만, 지능수준이 경계선급 경도장애에 있어 학습능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지진과 뇌의 기능장애나 인지적 결함 등의 기질적 문제가 원인인 학습장애와는 구별된다(상담학 사전, 2021)³⁾.</p> <p>다문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여러 연구자들(김영순 등, 2014; 남부현, 장숙경, 2016; 황매향 등, 2010)은 초등교사의 다문화 학생 지도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다문화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언어문제로 인한 소통의 곤란 등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으로 한국어 학습지도와 병행한 자신감 고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덧붙여 이를 위하여 다문화 전문 교사연수, 다문화 전담교사, 교과서 내용의 재구성, 언어교사 지원, 다문화 교육정보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같이 다문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부진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사의 지도경험과 관련하는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이 경험하는 학령기의 혼란과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그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타고난 잠재력 개발을 돕는 그들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자원에 집중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방법</p>	<p>1. 질적 사례연구</p> <p>질적연구는 개인 학습활동에서 일어나는 언어와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미시적 분석(microanalysis)부터 장기간에 걸친 심층 관찰과 면접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문서 분석, 면접, 교실 관찰, 사고 구술법(연구 참여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소리 내어 말을 하도록 함으로써 내적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p> <p>본 연구는 학습부진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자원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로서 참여관찰 및 면담 방식을 택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려 한다. 질적 연구는 어느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이나 내면 속에 있는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려 할 때 적합한 연구이다(이춘양, 김영순, 2020: 25). 사례연구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연구자가 통제를 가하지 않거나, 또는 거의 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되는 ‘어떻게’ 또는 ‘왜’의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고 싶을 때 접합한 연구이다(Yin, 2013, 1206)</p> <p>사례연구는 단일 사례연구와 복수사례연구로 나뉘는데, 본 연구는 6명의 연구 참여자와 1:1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진행할 것임</p>

로 질적 복수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자는 K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습상담사로 다문화 학생을 돕고 있다. 다음은 연구참여자의 특성 및 상담의뢰 내용 및 가정형태이다.

이름	성별	학년	상담의뢰 내용	가정 형태
김별일	여	초 3	국어 읽기 쓰기, 수학 받아올림, 받아내림 어려움.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김별남	여	초 1	한국어 듣기 가능, 읽기 및 의사소통 어려움.	국내출생 외국인 가정 한부모가정
김별이	남	중 1	한국어 듣기 가능, 읽기 및 의사소통 어려움.	국외출생 국제재혼가정
김별삼	여	중 1	한국어 듣기 가능, 읽기 및 의사소통 어려움.	국외출생 국제재혼가정
이별사	남	중 1	한국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어려움	국외출생 국제재혼가정
이별오	남	중 2	한국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어려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학습 상담 및 자료 수집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연구참여자는 총 16회기~25회기까지 학생 및 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학습상담이 진행된다. 자료수집을 위해 상담의뢰서, 교사/부모 행동척도 결과지, 교사/부모 상담 내용, 매회기 상담 및 성찰일지, 활동지 등을 참고한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핵심단어와 문장을 추출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ke(1995)의 직접해석(direct interpretation)과 범주화(Categorical aggregation)를 통한 사례연구 분석방법을 참고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갖게 되는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참여자, 그 주변인 등과 상호작용하며 크로스 체크하여 정리함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 하였다.

기대효과 및 가설

다문화가정 부모의 낮은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학생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의 낮은 한국어 능력은 학습부진 등으로 나타남은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 여가부 등 각 정부부처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쉽지 않다. 한편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열악한 가정 환경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반면 언어는 소통의 도구로서 가정이나 학교 교실에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어 기반 사회이므로 대부분의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도구는 한국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한국어 학습을 돕는 자원이 학교나 지역 센터 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돕는 생태체계 자원을 탐색하여 제시하려 한다.

<p>이전 연구와의 관계</p>	<p>21-1학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관한 국내학술지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탐색적 연구]를 하며, 다문화 학생의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학습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학습상담사로 다문화 학생의 학습상담을 도우며 발견한 연구문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소통의 부재]를 소재로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연구대상은 다문화 학생이며, 연구 주제는 한국어 교육에 있다. 본 연구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이 연구 주제이며 연구대상이다. 즉 본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현재 다문화 교육학과 소속으로 다문화 학생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다문화 학생의 가장 큰 해결과제를 한국어 능력 향상으로 보고 있기에 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p>
<p>박사논문의 관계</p>	<p>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소통의 부재]에 따른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염려한다. 특히 부모와의 대화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의 해결 방안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 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인데, 이들은 서로의 강점(모국어-한국어)으로 협동학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가 개선되며, 한국어-모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또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한국어 학습은 필수적인 바, 본 연구와의 관계는 크다고 하겠다.</p>
<p>연구의 사회적 기여</p>	<p>다문화 학생들은 언어 학습에 있어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각부처는 물론 초,중,고 등 교육기관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쉽지 않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소통하는 한국어 기반 사회이다. 따라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한국어로 소통하며 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자원을 탐색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합류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또한 한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도록 돕고자 한다.</p>
<p>연구일정</p>	<p>2021년 5월 ~ 2022년 2월</p>
<p>기타의견</p>	<p>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수집되는 자료들이 방대하여 이를 어떻게 배열함이 연구목적에 부각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상담의뢰서, 교사/부모 행동평가 척도, 사전/사후 RA-RCP(읽기 성취 및 읽기능력검사) 상담일지(상담 내용 및 교사/부모 상담 내용, 참여 관찰 내용 등) 등이 있습니다.</p>

1) 참고: 교육부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moe.go.kr).
 2) 참고: 학습부진(두산백과), 검색일: 2021. 4. 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60890&cid=40942&categoryId=31723/>
 3) 참고: 학습지진(상담학 사전), 검색일: 2021. 4. 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5146&cid=62841&categoryId=62841>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박옥현 / 지도교수: 정상우, 정기섭 교수님
- 연구과제명 : 독서활동을 통한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의 상호문화교육 방안

연구기간	2022년 3월 - 6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한국 사회 구성원은 변화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인 총 인구의 4.3%에 달하며(행안부, 2020),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전체의 3.0%에 달한다(교육부, 2021). 한편 저출산의 영향에 따라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은 매해 5-6만 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만 6~18세 인구의 10~15% 수준에 해당하는 50~60만명 가량이 된다(나무위키, 2021)다. 또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낮은 연령임에도 촉법소년의 범죄형태는 날로 대범화, 재범화, 집단화 하고 있어 촉법 소년제 폐지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력 제고에 대한 고민이 깊다.</p> <p>학교 안·밖이든, 다문화·비다문화이든 학령기 청소년은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숙달시키며 자아가 성장하는 결정적 시기로서 학습활동을 통해 지적인 기술의 습득과정에 몰입하며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단계에 있다(신명희 외, 2010: 60-66). 한국어 학습에 있어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다문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며 낮은 어휘력 등으로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에게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의미있는 삶과 소통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독서활동을 통한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의 상호문화교육 방안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p>
이론적 배경	<p>1. 독서활동을 통한 상호문화교육</p> <p>참고: 박옥현(2022)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학습 모델, 학술지 미정, ##-##.</p>

	<p>2. 다문화 청소년과 학교 밖(촉법 소년) 청소년</p> <p>참고: 우신영(2021)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육의 방향성 연구: 소년원 재원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3), 349-366.</p>
연구방법	<p>1. 실행연구 OR 사례연구</p> <p>2. 연구참여자</p> <p>1) 다문화 청소년</p> <p>2) 학교 밖(촉법) 청소년</p> <p>3. 자료 수집 및 분석</p>
기대효과 및 가설	<p>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이든, 학교 안·밖 청소년이든, 청소년은 현재는 물론 미래 한국의 주인이다. 따라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며 사회적 자본이 구축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서로의 강점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게 도우려 한다. 이를 통해 현 청소년이 성년으로 성장하여 한국 사회의 중심축의 역할을 할 때, 건강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려 한다.</p>
이전 연구와의 관계	<p>본 연구는 한국어 기반 한국 사회구성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우려는 본 연구자의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 대상은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 학교 안·밖 청소년에 해당하며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기위한 방안은 독서활동이 된다.</p>
박사논문과의 관계	<p>박사논문은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학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인데, 본 연구는 [독서활동을 통한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의 상호문화교육 방안]이다. 따라서 박사논문 주제, 대상을 조금 확장한 연구라 할 수 있다.</p>
연구의 사회적 기여	<p>[기대효과 및 가설]의 내용으로 같음한다.</p>
연구일정	<p>2022년 3월 ~ 6월</p>
기타의견	<p>본 연구의 참여자는 학교밖-촉법소년임으로 관련하여 사회교육과, 정상우 교수님의 조언을, 연구주제는 상호문화교육이므로 교육학과, 정기섭 교수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가능하면 좋겠습니다.</p>

1) 출처: 학교 밖 청소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검색일: 2021.12.6.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김보라(석), 박옥현/ 지도교수: 장성민 교수님
- 연구과제명 : Q방법론을 활용한 “훌륭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기간	2022년 1월 - 12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합류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인 2,216,612명에 달하며(행안부, 2020),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60,056명에 달한다(교육부, 2021). 한편 오랜동안 이어져 온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2020년 한국은 사상 첫 인구감소를 경험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p> <p>이와 같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화가 심화함에 따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 진정 훌륭한 다문화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Q방법론을 활용하여 BK21FOUR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원 등으로 선발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훌륭한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p>
이론적 배경	<p>1.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이해</p> <p>1) 조희원(2013), 국제이주와 한국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고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5(3), 5-30.</p> <p>2) 이정은(2017),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대결 - 한국적 적용을 위한 연구, 시대와 철학, 28(1), 191-234.</p> <p>2. 다문화 교육 정책</p> <p>1) 이정금(2019), 미래사회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교육문화연구, 24(1), 549-567.</p>
연구방법	<p>“Q방법론”은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에 대응하는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학을 위시한 사회과학계 일부와 심리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Q-sorting이라 불리는 특유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관성(subjectivity)을 객관화하여 분류하는 유형론(typology)이다(나무위키, 2021¹⁾).</p> <p>선행연구 참고 자료:</p> <p>1. 조경철(2016). Q방법론을 활용한 중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탐색적</p>

	<p>연구,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55(2), 141-152.</p> <p>2. 서동희, 전희정(2019), 대학생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 한국융합학회, 10(11), 437-444.</p> <p>3. 이오복(2019), 다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유형 연구 -사회복지사,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6), 395-410.</p>
기대효과 및 가설	<p>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임에 대한 반론은 없다. 반면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함에 따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심도 깊은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p>
이전 연구와의 관계	<p>21-2학기 00과목을 수강하며 원생들과의 논의에서, 현행 다문화 교육은 단기 특강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에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의 일원으로서 선제적으로 현행 다문화교육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이 옳다는 판단하에 위와 같은 연구계획을 제안합니다.</p>
박사논문의 관계	<p>2020년 봄 학기부터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한국 다문화교육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사논문의 주제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학습(Tandem Learning)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이니, 이는 “훌륭한 다문화교육”의 하나임에 틀림없다.</p>
연구의 사회적 기여	<p>2021년 말, 돌이킬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화에서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돕는 훌륭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합의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함은 향후 한국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다.</p>
연구일정	<p>2022년 1월 - 12월</p>
기타의견	<p>본 연구는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는 물론이고 한국 다문화교육을 대표하는 BK21FOUR 산학 협력 대학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2022년 중 참여 대학 간 교류의 자리를 요구합니다.</p> <p>Q방법론에 있어 국내 대표학자이신 인하대 국어교육과 장성민 교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p>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장현정

□ 연구과제명 : Q방법론을 활용한 중등학습자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유형 탐색(가제)

연구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6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이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중등학습자의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사회정의 이론에 비추어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p> <p>다문화 교육 담론에서 사회정의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다문화 교육 담론에서는 최종 지향점을 ‘사회정의’, ‘사회적 행동’에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과 행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Banks & Banks, 2004; Bennett, 2007; Sleeter & Grant, 2007). 이에 따라 중등학습자의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해석하여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지와 성찰을 통해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Bennett, 2007). 이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사회정의”에 대한 통념과 편견을 파악하고 이를 인식 개선 교육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p>
이론적 배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해서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Capeheart & Milovanovic, 2007)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분배적 정의는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한다. 분배적 정의에는 브루디외가 말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분배도 포함될 수 있다. 2. 인지적 정의(recognitive justice) : : ‘사회의 문화와 현실에서 억압이 존재하고, 민주적 가치와 인류 평등적 가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불일치되는 것’(Boler & Zembylas, 2003)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문화적 제국주의는 한 사회의 지배적 의미로 인해 특정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고, 지배적 집단의 경험과 문화가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화되며, 지배적 집단의 문화가 중심적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고 자연스럽게 정체감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정의는 사회의 문화가 사람들 간의 상호존중과 자아존중감, 존엄성이 핵심적인 가치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Gewirtz, 2006). 3.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 : ‘정치적 권리의 평등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Gewirth, 1962)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정치적’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 설득, 책략, 압력, 타협 등을 사용하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 정의는 권력과 영향력의 의미를 결합시킨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며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어떻게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4.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한 집단에 얼마나 많은 투입이 가해졌는가’(Reason & Davis, 2005)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Tyler & Smith, 1998)과 관련된 개념이다. 즉, 의사결

	<p>정 과정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한 집단에 얼마나 많은 투입이 가해졌는가가 절차적 정의에서 문제가 된다. 만약 의사결정 과정이 중립적이고, 신뢰로우며, 존중되었다면 절차가 공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Tyler, 1994).</p> <p>5.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는 ‘관계되거나 저질러진 행위에 상응하는 것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즉, 쉽게 말해 응보적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의미로 접근하는 개념이다(Capeheart & Milovanovic, 2007). 범죄는 법 위반과 유죄로 정의되는 국가에 대한 침해다. 따라서 사법은 체계적 규칙에 의해 지도되는 범죄 가해자와 국가의 경쟁을 통해 비난을 결정하고 고통을 부과한다. 반면, 응보적 정의와 대조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특정한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서 함께 피해와 요구사항, 책임을 확인하고 다루는 절차로서 치유와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아직 이론적 배경에 관한 실제적 문헌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정의의 분류가 추상적임. 동계 방학 동안 보완이 필요함.</p>
<p>연구방법</p>	<p>중등학습자 표집 참여자(P표본)을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데이터 수집을 거쳐 Q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1차 데이터 수집에서는 “정의로운 사회란 어떠한 사회이다.”는 통사 구조로 세 개 이상의 진술문과 그 이유 기술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수집한다. 2차 데이터 수집은 확보된 진술문 가운데 Q분류에 활용할 진술문을 확보하고자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3차 데이터 수집은 확정된 00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Q분류를 실시한다.</p>
<p>기대효과 및 가설</p>	<p>중등학습자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해석하기 위해 정의의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다문화사회에서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p>
<p>이전 연구와의 관계</p>	<p>장현정, 장성민(2021)의 “사회정의 관점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제재 타당성 검토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에서 다문화 교육의 최종 지향점으로 학습자들의 공동체 문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 실제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여 해석하고자 한다.</p>
<p>박사논문과의 관계</p>	<p>“소통 중심의 다문화 교수·학습 설계가 상호문화적 감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가제)”에서 6 차시로 구성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때 마지막 6회기에 학습자에게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주제로 에세이 작성을 진행한다. 이 연구 결과가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 질적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p>
<p>연구의 사회적 기여</p>	<p>중등학습자의 사회정의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정의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년 12월 : 비구조적 추출형 방식을 사용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정의로운 사회 어떨어떠한 사회이다.”에 대한 진술문 1차 수집, 동일한 방식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 3째주 진술문 2차 수집. 2. 2021년 1월 ~ 3월 15일 :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수집한 중등학습자들의 진술문을 코딩하여 1차 Q 진술문 도출. 3. 2021년 3월 중순 : 연구 대상자(p sample)를 선정하고 1차 진술문에 대해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동의 정도에 대한 예비 평정을 거쳐 2차 진술문을 추출함. 4. 2021년 3월 말 : 2차 진술문을 바탕으로 Q 분류(강제분포, forced-distribution)를 실시하고, Q분류에 대한 후속 면담(follow-up interview)을 서면으로 진행하여 학습자의 “정의로운 사회”인식 유형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추가로 확보함. 5. 2021년 4월 ~ 6월 : 연구결과 정리 및 논문 작성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의견</p>	<p>현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1차 진술문 수집을 마친 상태이나 학습자의 진술문을 질적코딩하는 과정에서 진술문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 범주가 제대로 분포되어 나타나지 못했다고 판단함. 2차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진술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협의 중.</p>

참고문헌

길병옥 (202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김달효 (2012). 정의관의 유형 개발과 타당도 분석. 인문과학연구논총(33), 209-230

김순은 (2016). Q 방법론과 사회과학 (개정판). 조명문화사.

장성민(2020), Q 방법론을 활용한 '좋은 글'에 대한 예비 국어교사의 인식 유형탐색, 『청람어문교육』 77, pp.65-117.

Boler, M., & Zembylas, M (2003). Discomforting truths: the emotional terrain of understanding difference. In P. P. Trifonas.(ed.). Pedagogies of difference: rethinking education for social change. New York: Routledge Falmer

Capeheart, L., & Milovanovic, D (2007). Social justice: theories, issues, and movements.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Gewirth, A (1962). Political justice. In R. B. Brandt.(ed.). Social justi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Reason, R. D., & Broido, E. M (2005). Issues and strategies for social justice allies (and the student affairs professionals who hope to encourage them).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 이름 : 최수안
- 연구과제명 : 협동학습에서의 학생 행위자성에 관한 사례연구

연구기간	2021.12.6.~2022.2.28.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2학기 수업 조교로 참여한 「문화와 사회」 수업을 기반으로 학생 행위자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행위자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한계점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소집단 심층면담, 수업 과제, 성찰일지, 참여관찰일지 등을 참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협동학습에서의 학생 행위자성을 연구함으로써, 학생이 수업 환경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밝히고자 한다.</p>										
이론적 배경	<p>• 협동학습 「문화와 사회」 수업은 예비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공과목으로서, 문화인류학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다. 수업 운영 형태는 크게 강의식 수업과 토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의식 수업은 학습자의 원활한 토론을 위한 개론 강의라고 볼 수 있다. 수업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p> <p>① 학습자는 수업 운영 포털 사이트에 교수자가 게시한 수업자료를 검토하고, 모둠 활동을 위한 자료를 구성한다. ② 교수자는 게시한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이론 강의를 진행한다. ③ 학습자는 이론 강의+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 활동을 한다. ④ 모둠 활동에서 각자 정리한 내용을 나누고 결과물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친다. 교수자는 모둠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참여관찰하거나, 학습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기도 한다. ⑤ 모둠 활동이 끝나면 모둠 활동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교수자는 모둠의 결과물을 평가하기 보다는 모둠원들의 상호작용의 방향성, 추가로 살펴볼 학습 내용에 대해 지도한다. ⑥ 수업 종료 후 모둠의 최종 결과물은 모둠의 대표가 수업 운영 포털 사이트에 올린다. 학생들은 개별 과제, 수업 성찰일지를 포털 사이트에 올린다.</p> <p>협동학습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협동학습에 대한 학자 간 정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학자</th> <th style="width: 20%;">Slavin (1987, 1991)</th> <th style="width: 20%;">Cohen (1994)</th> <th style="width: 20%;">Roschelle & Teasley(1995)</th> <th style="width: 20%;">Johnson & Johnson(200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내용</td> <td>개별 보상과 추가적 집단 보상 개별 책무성 학습 참여의 균등한 기회</td> <td>집단 과제 책무성 상호의존성</td> <td>상호 목표 상호작용 공통의 지식 스키마 지식의 불균형 집단활동의 상황</td> <td>긍정적 상호의존 개인적인 책무성 활발한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모둠화 과정</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김창아, 2016: 93 재구성)</p> <p><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협동학습은 개별 영역에 대한 것과 공동 영역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Johnson & Johnson(2002)은 협동학습</p>	학자	Slavin (1987, 1991)	Cohen (1994)	Roschelle & Teasley(1995)	Johnson & Johnson(2002)	내용	개별 보상과 추가적 집단 보상 개별 책무성 학습 참여의 균등한 기회	집단 과제 책무성 상호의존성	상호 목표 상호작용 공통의 지식 스키마 지식의 불균형 집단활동의 상황	긍정적 상호의존 개인적인 책무성 활발한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모둠화 과정
학자	Slavin (1987, 1991)	Cohen (1994)	Roschelle & Teasley(1995)	Johnson & Johnson(2002)							
내용	개별 보상과 추가적 집단 보상 개별 책무성 학습 참여의 균등한 기회	집단 과제 책무성 상호의존성	상호 목표 상호작용 공통의 지식 스키마 지식의 불균형 집단활동의 상황	긍정적 상호의존 개인적인 책무성 활발한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모둠화 과정							

	<p>에서 '모둠화 과정'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모둠화 과정은 상호의존성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토론활동을 포함한다(김창아, 2016). 김창아 외(2014)는 모둠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에 대해 인정, 반성, 성찰이라는 개인의 내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화와 사회」 수업의 과정은 협동학습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 활동을 통해 긍정적 상호의존을 촉진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행위자성 <p>Ahearn(2001: 112)는 행위자성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매개된 행동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성준(2020)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학습은 완전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면서 배우는 '상호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Arnold와 Clarke(2014) 또한 학생 행위자성은 개별 목표를 향해 목적성 있게 행동하고, 기존의 교실 상호작용의 패턴을 변화시키며, 특정 맥락에서의 학습 관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학생 행위자성은 다양한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p> <p>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협동학습은 학생 행위자성이 발휘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성준(2020)은 현재 교사 및 학교 중심으로 수업 평가 주도권을 지닌 교육 맥락 안에서 학생 행위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수업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교사와 학생의 공동의 행위자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맥락에서 학생들은 행위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도성'이나 '능동성'뿐만 아니라 다른 역량을 추가적으로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방법</p>	<p>질적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연구는 '사례'라는 경계 지어진 체계에 있는 연구참여자나 장소 등의 자료수집을 통해 '사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김영순 외,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와 사회」 수업에 참여한 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사례연구를 토대로 학생 행위자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소집단 심층면담, 토론 경험에 대한 성찰일지, 과제, 참여관찰일지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동의를 얻고, 소정의 사례를 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기대효과 및 가설</p>	<p>학생은 수업환경을 구성하는 주체 중 하나이지만, 그간의 수업환경은 이들이 주체로서 자신들의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협동학습은 학생의 행위자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전히 교수자 및 학교 중심의 평가 환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행위자성의 발현과 한계점을 탐구함으로써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전 연구와의 관계</p>	<p>본 연구자는 지난 2021년 여름방학 기간에 경기꿈의대학 교수자의 행위자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상호소통 및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자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 행위자성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행위자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p>

<p>박사논문과의 관계</p>	<p>박사논문의 연구주제를 이주여성들의 공동체나 자조모임 등의 상호소통 및 실천에 대해 연구로 변경하였다. 이는 지난 연구에서 행위자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행위자성이 상호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힘이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p> <p>최병두(2009: 637)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행동은 사회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공간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재생산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호소통에 기반한 행위자성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박사논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p>	
<p>연구의 사회적 기여</p>	<p>학생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라 볼 수 있는 행위자성은 개인의 역량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다양한 맥락과의 상호작용 또한 행위자성을 발휘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혁신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p>	
<p>연구일정</p>	<p>2021년 12월 6일~ 12월 26일</p>	<p>이론적 배경, 심층면담 질의내용 정리, 보조 연구자료 수집, 연구참여자 모집</p>
	<p>2021년 12월 27일~ 12월 31일</p>	<p>자료수집(소집단 면담)</p>
	<p>2022년 1월 3일</p>	<p>초록 제출(END 2022)</p>
	<p>2022년 1월 3일~ 1월 23일</p>	<p>자료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p>
	<p>2022년 2월 28일</p>	<p>최종본 제출(END 2022)</p>
<p>기타의견</p>	<p>참고문헌</p> <p>김창아, 김영순, 홍정흔(2014). 교육연극활동에 참여한 다문화 대안학교 초등생의 협동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4), 177-205.</p> <p>김창아(2016). 교육연극을 통한 다문화 대안학교 초등학생의 협동학습. 성남: 북코리아.</p> <p>박상준(2020).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에 기초한 교육의 혁신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765-787.</p> <p>최병두(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 635-654</p> <p>Arnold, J., & Clarke, D. J. (2014). What is 'agency'? Perspectives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6(5), 735-754.</p> <p>Cohen, E. G. (1994). Restructuring the classroom: Conditions for productive small group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4(1), 1-35.</p> <p>Johnson, D. W., & Johnson, R. T. (2002). Cooperative learning and social interdependence theory. In Theory and research on small groups (pp. 9-35). Springer, Boston, MA.</p> <p>Roschelle, J., & Teasley, S. D. (1995). The construction of shared knowledge in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In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pp. 69-97). Springer, Berlin, Heidelberg.</p>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김은희
- 연구과제명 : 좋은 다문화 멘토링에 대한 멘토의 인식 유형 연구

연구기간	2022. 02.01~06.30.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한 좋은 다문화 멘토링에 대한 멘토의 인식 유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들은 자신의 실천행위인 멘토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의 유형에 따라 멘토링의 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p> <p>멘토는 다문화 멘토링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주체이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멘토링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며, 멘티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 멘토의 특성에 따라 멘토링 내용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멘토링의 질과 방법도 다양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인식이 추출되어 멘토들의 경험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멘토들의 인식 유형을 밝히는 본 연구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멘토링의 모본을 세우고 멘토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
이론적 배경	<p>다문화 멘토링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소외를 방지하고 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장학사업으로 대학생 멘토들은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으며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다문화 멘토링은 멘티(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심리적 안정, 진로탐색 기회 확대 등 멘티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지훈·김민아, 2016; 오성배·박희훈, 2018). 이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대학생 멘토의 다문화 인식 변화(오세경·김미순, 2016; 임지혜·김금희, 2014), 고정관념과 편견 감소(김기영, 2014; 김한나·김홍석, 2012), 다문화 태도와 효능감 향상 등 멘토의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멘티와 멘토의 상호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실천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다.</p> <p>그러나 위에 열거한 긍정적 결과와 함께 부정적 경험을 체험하는 경우도 많다. 멘티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 체계적 교육 지원 부족, 경제적·물리적 부담, 제한된 활동 범위와 내용, 개인 역량의 한계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김한나·김홍석, 2012; 우희숙, 2010; 윤경원·엄재은, 2009). 이러한 문제들은 멘토들의 중도포기로 이어지고, 안정된 멘토링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멘토링의 질적 수준과 멘토-멘티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 <p>멘토들은 무엇이 좋은 멘토링인지 알지 못한 채 개인적 판단과 역량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멘토링의 질적 수준이 멘토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우희숙, 2010). 이러한 문제는 멘토링 중도포기, 불만족, 갈등 관계 등 개인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의 멘토 지원과 관리, 멘티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 및 협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p>

	<p>있다.</p> <p>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멘토링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물과 멘토링의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한 양적 연구물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좋은 멘토링’에 대한 판단의 준거를 도출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방법</p>	<p>Q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주관적 인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연구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가치관과 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김순은, 2010). Q방법론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현상에 대한 총체적 반응(시각, 생각, 이미지 등)을 너와 나의 전체적 관점에서의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전체적 맥락 속에 있는 부분들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김흥규, 2008: 81). Q방법론은 연구자의 재량 및 유연성 측면에서, 개방형 질문과 면담을 사용하여 Q표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연구참여자들의 자작적 주관성을 정도측정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질적 방법론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순은, 2010).</p> <p>1. 연구참여자</p> <p>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2022년 1학기부터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 00명(예상 30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P표본 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에 대한 설명을 공지하고 자발적 참여자에 한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학기 초에는 다문화 멘토링을 실시한 기간이 짧아 멘토링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멘토링 실시 후 두 달 이상 지난 시점(5월경)에서 최소 10시간 이상 멘토링 활동을 한 멘토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Q진술문을 수집하고자 한다.</p> <p>2. 자료수집 및 분석</p> <p>① Q표본 작성: Q분류에 활용할 진술문을 확보하기 위해 P표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나는 좋은 멘토링이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주관적 성격의 문장을 3개 이상 진술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다(구글설문지 활용).</p> <p>② P표본 구성: P표본 추출은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 대상자들이 고루 분포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대략 30-50명이 적절하다(김순은, 2010). 연구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1. 연구참여자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p> <p>③ Q표본 분류: 첫 번째 자료수집을 통해 확보된 진술문(00개)이 포함된 설문 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배포하여 각각의 진술문을 5점 척도(수집된 진술문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로 평가하여 Q표본으로 선정한다.</p> <p>④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카드를 동의정도에 따라 정규분포에 가깝게 강제 분포시켜(forced distribution) 이를 점수화하여 결과값을 산출한다.</p> <p>⑤ PQMethod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여 Q 연구의 분석자료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다.</p>

기대효과 및 가설	<p>본 연구는 멘토링에 대한 멘토들의 인식 유형을 밝혀냄으로써 멘토링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멘토-멘티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멘토링 실행 방법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멘토 교육 및 체계적 지침이 없는 현황에서 멘토 교육을 위한 실질적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p>
이전 연구와의 관계	<p>2021-2학기에 다문화 멘토링 관련 연구물 11편을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멘토링 현장의 경험을 여러 각도에서 종합하여 해석하여 멘토링에 담긴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멘토링의 의미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멘토들이 다문화 멘토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학습봉사 차원으로 그치는 한계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고, 멘토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멘토링 행위자인 멘토들이 멘토링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의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p>
박사논문과의 관계	<p>연구자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자들의 경험(멘토, 멘티)을 토대로 멘토링 참여의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현장 연구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다문화 멘토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p>
연구의 사회적 기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 멘토링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현장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멘토링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3. 멘토링 유형에 따라 멘토 교육의 체계를 세우고, 멘토링을 보완할 수 있다.
연구일정	<p>2022.1월~3월. Q방법론 공부, 이론적 배경 정리 2022.4월~5월. 다문화 멘토링 참여자 선발, 연구 목적 설명 및 연구참여자 모집 2022.5월 자료 수집(3차에 걸쳐) 2022.5월~6월 자료 분석, 해석</p>
기타의견	<p>박사논문의 기초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연구방법을 활용해야 하므로 연구 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아닌 멘토의 경험에 기반한 진술문을 자료로 삼고, 일부 연구자와는 면담도 진행하여 심층적인 내용을 보충하고자 합니다.</p>

참고문헌

- 김기영(2014).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멘토의 '동반성장' 사례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1), 29-50.
- 김순은(2010).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서울행정학회, 20(4), 1-25.
- 김한나·김홍석(2012).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멘토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다문화교육연구」, 5(2), 91-113.
- 김흥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지훈·김민아(201).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1), 65-94.
- 오성배·박희훈(2018).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6(1), 71-92.
- 오세경·김미순(2016). 대학생의 다문화 멘토링 활동 경험을 통한 다문화 인식 변화.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지」, 6(9), 201-210.
- 우희숙(2010). 예비교사의 다문화 멘토링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7(4), 141-165.
- 윤경원·엄재은(2009). 다문화 멘토링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9(3), 101-124.
- 임지혜·김금희(2014). 다문화 가정 청소년 멘토링 경험의 의미와 멘토의 역량 강화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17, 279-307.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남정연
- 연구과제명 :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가제)

연구기간	~2022년 1학기까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이론을 중심으로 베트남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그리고 그러한 생애 경험에서의 성장 변화한 모습을 통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장을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	<p>1. 듀이의 경험이론과 성장</p> <p>경험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경험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감각을 통해 얻는 것과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은 물리적 개념의 의미에서부터 추상적 개념의 의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경험의 의미적 확장을 통해 인간 생활의 연속성과 상호교환적 삶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이론적 의미는 인식 또는 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적 입장 및 경향으로 초경험적 존재나 선천적인 능력보다 감각과 내성을 통하여 얻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하여 전자도 후자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고방식이다(이춘양, 2021: 36).</p> <p>변화란 곧 경험 주체로서의 인간과 대상으로서의 환경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감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확립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장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는 경험은 삶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를 듀이의 계속성의 원리라고 한다. 듀이의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험을 발생시키는 전체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닌다(권윤경·이찬, 2015).</p> <p>1차원 경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단순히 얻는 직접적인 경험이며, 2차원의 경험은 현재의 경험이 앞으로의 경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과정이다. 더 깊은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집중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현재의 경험에서 연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ewey, John, 1983). 그리고 경험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 변화는 경험의 주체인 인간과 대상의 환경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종래와는 다른 의미를 확립하는 것이다. 성장은 경험이 끊임없이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수반하는 경험은 삶이 지속하게 될수록 꾸준히 일어난다(황건화·임선화·김주연, 2019).</p> <p>듀이의 경험이론을 정리하면 경험은 곧 삶이고, 삶은 곧 환경의 적응 작용이다. 즉 경험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며, 상호작용의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1차 직접적 경험하면서 2차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어,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자기 가치를 드러내며,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함을 통해 배우게 되고, 변화하게 되어, 성장하게 된다.</p> <p>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속 성장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결혼부터 한부모가 되기까지의 1차 직접적 경험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생애 경험을 깊이 이해한다. 한부모 되기 전과 비교하여 한부모가 된 후의 2차 성장 변화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p>

<p>연구방법</p>	<p>생애사 연구(life history)는 한 개인이 살아온 모든 행위가 구조화된 자기 상이며,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다(Mandelbaum, 1983). 구조적 약자와 직면하면서 성장한 학문(유철인, 1998)이라는 표현처럼 단순히 한 개인의 일생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그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Rosenthal, 2008).</p> <p>본 연구 참여자인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다. 참여자의 생애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의 스토리가 아닌,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시간성, 주관성, 이야기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시간의 맥락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수행해 왔으며, 그에 대한 자기해석과 의미부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라는 삶의 과정에 대한 일반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 생애사 연구로 사료되어 채택하였다.</p>
<p>기대효과 및 가설</p>	<p>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한부모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p>
<p>이전 연구와의 관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이주여성 대상 수필교육을 통한 내면화 사례연구(11/20 한국문화교육 학회 투고, 결과 대기 중) 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 제공에 대한 사례연구(2022. 1/15 현대사회와 다문화 재투고 예정) 3.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문식성 함양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11/27 한국언어문화학회 발표) <p>--> 결혼이주여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짐.</p>
<p>박사논문과의 관계</p>	<p>박사학위논문을 “파독 간호사 배우자의 생애사 연구“(가제)로 계획하고 있다. 정주민으로서 이주민 여성과 결혼한 배우자의 생애사를 연구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를 미리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p>
<p>연구의 사회적 기여</p>	<p>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고정 관념 전환, 그리고 향후 한부모이주여성의 적응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구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이춘양, 2021: 5).</p>
<p>연구일정</p>	<p>2022. 1학기 동안 완성하여 투고를 목적으로 함.</p>
<p>기타의견</p>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문희진
- 연구과제명 : 사회과 수강 과목에 따른 현지 조사 특징에 관한 연구: 예비사회교사를 중심으로

연구기간	2021.12~2022.0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본 연구는 1대학의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재학생 중 '문화와 사회'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사회과 수강 과목에 따라 나타나는 현지조사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p> <p>사회과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반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2015 사회과교육과정).</p> <p>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제시한다. 이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교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수집하여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사회교사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특강을 시행한 후, 사회과 과목 수강 과목에 따라서 현지 조사 보고서의 결과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학습자의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p>
이론적 배경	<p>1. 사회과 교사의 역량</p> <p>시민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은 일종의 실천의 과정이고, 교사의 실천 과정은 학생들에게 사회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타인이나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종의 민주적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즉, 교사 스스로가 학생들을 시민적 존재로 대하고 각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도 함께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박새롬, 2016).</p> <p>사회과 핵심역량은 대인관계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정보(처리)활용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지역/국가/글로벌) 5개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김현미 외, 2015).</p> <p>2. 현지조사의 의미와 자료수집 방법</p> <p>문화인류학의 방법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현지조사(fieldwork) 방법을 쓴다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에 있어서는 인간사회와 문화를 우리의 연구목적에 맞도록 미리 통제하거나 실험설계를 할 수가 없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들어가서 현지조사를 행한다. 현지조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연구자가 사회적 상황 속에 들어가서 비교적 장기간(1~2년)에 걸쳐 행위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질문하며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민족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한상복, 2019).</p>

<p>연구방법</p>	<p>1. 연구참여자: 대학의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재학생 중 2021-2학기 '문화와 사회'를 수강한 학생 2. 자료수집: '문화와 사회' 수업 참여관찰, 설문조사(인적사항, 사회탐구 수강 과목, 사회과 임용고시 응시여부 등) 3. 자료분석: 설문자료 결과를 기초로 현지조사 보고서의 특성 분석, 심층 면담</p>
<p>기대효과 및 가설</p>	<p>사회과 수강 과목에 따라 현지조사의 특징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각 사회교과목이 현지 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비사회교사의 현지조사 경험은 교사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p>
<p>이전 연구와의 관계</p>	<p>21학년도 2학기 '다문화교육 질적연구방법론' 수업 중 5주차(08월 12일), 12주차(11월 09일) 2차례에 걸쳐 통합연구에 관련된 토론문과 발제문을 발제하였다. 이 경험을 토대로 실제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p>
<p>박사논문과의 관계</p>	<p>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혼합연구를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혼합연구는 순차적 연구설계(양적→질적)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로 현황을 파악한 후, 면담을 통해 나온 방안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p>
<p>연구의 사회적 기여</p>	<p>예비사회교사의 현지 조사 경험은 사회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 하나인 '시민의식' 역량과 관련이 있다. 시민의식 역량이란 지역, 국가,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실천하고, 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위하여 지역, 국가, 지구촌의 공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행동 정향이다(김현미 외, 2015).</p>
<p>연구일정</p>	<p>~12.26 연구 설계 및 서론 작성 2022.12.27.~12.31 심층 면담 질문지 작성 및 진행 2022.01.01.~01.15 심층 면담 분석 2022.01.15.~02.01 결과 작성 2022.02.02.~02.14 전반적인 내용 정리 및 마무리</p>
<p>기타의견</p>	<p>참고 문헌 교육부, 2015 사회과교육과정 김현미·조철기·이준혁(2015), 사회과 핵심역량 선정, 의미 상세화 및 위계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2-2호, 145-59쪽 박새롬(2016), 사회과 교사교육의 내용 요소 및 발전 방향 탐색, 교육문화연구. 22-3호, 1-18쪽 한상복·이문웅·김광역(2017),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p>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서현주
- 연구과제명 : 미술치료를 경험한 애착불안 아동의 정체성 구성에 관한 사례연구

연구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2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인간은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환경인 가정에서 초기 양육자인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며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의 정서 발달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편화하고 가족형태도 핵가족화 되면서 주 양육자와 떨어져 자라는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 양육자인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질을 적절히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들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정서 부분이나 행동의 문제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아동의 양육환경을 살펴보면 아동의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잦은 분리 경험, 조부모 양육, 친척 양육 등 잦은 양육자의 변경 혹은 현재 양육자와 분리 상태나 우울한 모의 공감 부족과 냉담한 반응 등의 가족 요인 및 아동의 기질과 성격 등의 생물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남경인, 이미숙, 2006).</p> <p>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점차 가족을 벗어나 학교에서의 생활과 또래 관계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학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 갈 때 아동들은 자신감도 느끼게 되고 자신과 타인 및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탐구 능력과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책임감을 느낀다(유안진 외, 2001). 그러므로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경우는 그 의미를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경험한 외상 경험에 대해 건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외상 경험자들은 외상을 재경험 하고 기억을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김선현, 2018). 이러한 이유로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외상의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경우 자아 정체감을 통합시키지 못하게 되고 자기 비하, 자기 패배감에 빠지게 된다. 학령기 시기의 불안정 애착 아동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표출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 <p>불안정 애착 아동이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관계의 재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억압되어있는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율할 기회를 얻게 되어 미해결된 욕구가 잘 해결된다면 이들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은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정서의 안정을 하고 주된 양육자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하리라는 것을 확인한 후 건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며 성장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임경수, 2018). 이를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정체성이란 단지 자신에 대한 자체의 개념이나 자각만 의미할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심리적인 자신감과 안정감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지원, 2011). 그러므로 애착 대상과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여 상실과 박탈을 경험한 아동을 빠르게 회복 시켜 줄 수 있는 것 또한 안정적인 관계이다(Whelan & Marvin, 2011).</p>

	<p>불안정 애착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에서 불안정 애착 아동은 다양한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가지며 정서를 함양시키고 문제행동을 조절하였다(이미애, 2004). 또한 미술 치료과정에서 미술 치료자는 Winnicott의 ‘안아주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치료자는 불안정 애착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아동이 겪고 있는 불안, 우울, 공포, 위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꺼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와의 초기관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이미애, 2004). 이 과정을 통해 생애 초기 양육자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애착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동은 안정 애착으로 바뀔 기회를 얻는다(Rogers, 1959). 아동은 이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가정과 학교나 또래 공동체에 참가하여 소속감을 느끼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박아청, 2010).</p> <p>본 연구는 미술치료를 경험한 애착 불안 아동의 애착형성과 정체성 구성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p> <p>첫째, 미술치료를 경험한 불안 애착아동의 애착 형성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불안 애착 아동의 애착 형성은 정체성 구성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p>
<p>이론적 배경</p>	<p>1. 애착 이론</p> <p>애착 이론은 인간의 고유하고도 강력한 내적 동기로 애착을 들고 있다. Bowlby(1973)의 이론에 따르면 애착이란 주 양육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갖는 성향으로 유아와 어머니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생긴 내적 작동 모델로서 아동이 생애 초기 일차적인 애착 대상인 부모나 의미 있는 타인과 맺은 애착 관계의 질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유아기나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애착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장점을 발휘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Ansberry, 1999).</p> <p>아동이 초기 양육자인 애착 대상과의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면 자기, 타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인 지도와 표상 모델을 형성한다. 양육자와 아동 간의 적절한 돌봄과 민감한 반응에 따라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 자기 돌봄이 가능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자기조절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를 통하여 타인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도 배워나간다(박민선, 진중국, 2016).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세상을 향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하며 나아갈 안전기지(Bowlby, 1988)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치 없다고 여기며 타인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기 어렵고 자신을 향해 열려있는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 탐색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 정서적인 발달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p>

	<p>다(권윤정, 2016). 이처럼 애착은 인간이 전 생애를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채민경, 2018).</p> <p>2. 애착형성과 자아정체성</p> <p>에릭슨(Erikson)은 자아 정체감이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추구하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성취하며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사회나 또래 공동체에 참가하여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대인 관계 어려움과 함께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박아정, 2010).</p> <p>에릭슨이 구분한 인간의 발달단계 8단계 중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기를 4단계인 (잠복기)학령기라 하며 자아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보았다. 이 시기에 자아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른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아동기는 유아기 이후 자아정체성이 성장 및 발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로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과도기임을 의미한다.</p> <p>에릭슨이 구분한 자아정체성의 두 가지 측면은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의 정체성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도 자신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자각하고 이를 타인이 인식한다는 사실도 자각하는 주관적인 측면의 정체성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에 대한 일치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정체성이 객관적인 측면으로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에릭슨이 주장하는 자아 정체성은 유아기 이전에 형성하고 발달하거나 청소년기에야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여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며 연속선상에서 지속해서 형성 및 발달하는 것이라 보았다(김설리, 조남규, 2019).</p> <p>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행연구에 나타난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인 불안, 우울, 위축, 공포 및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피상적이고 거짓된 감정표현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윤민주, 2018; 이경하, 2007; 이미애, 2004). 부정적 정서로 인한 주의력 저하(이경하, 2007; 최나리, 2015), 또래 관계에 대한 불신과 공격성, 언어발달의 문제 및 사회성 부족(박민선, 전중국, 2016; 정계숙, 이은하, 2010; 최나리, 2015)등은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관계의 재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억압되어있는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율할 기회를 갖게 되어 미해결된 욕구가 잘 해결된다면 이들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체성 형성과 발달을 이어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 아동의 미술치료 과정과 치료사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애착의 재경험과 자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의 사례연구이다. 사례 연구는 현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는 ‘경계 지어진 체계’ 또는 연구의 ‘대상’으로, 사례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례가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된 범위를 갖는,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Stake, 1995).</p>

	<p>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p> <p>첫째, 연구사례인 불안 애착 아동의 미술치료 경험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이라는 시간과 S 정신건강의학과 부설 발달센터 미술치료실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미술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치료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경계와 미술치료 실의 공간적 경계로 한정된다.</p> <p>둘째,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미술 작품과 치료 경과보고서이지만, 그 외에 사례관리일지, 심리 검사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p> <p>셋째, 이론적 배경과 미술치료 과정에서의 작품 사진과 활동내용을 근거로 한 분석을 통해 불안 애착 아동의 미술치료 과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질적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p> <p>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전부터 치료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미술 치료사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아동의 미술 치료과정에서의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p>
<p>기대효과 및 가설</p>	<p>미술치료를 통해 불안정 애착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재경험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함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성취함으로써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경험과 의미를 탐색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가운데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비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 및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과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p>
<p>이전 연구와의 관계</p>	<p>선행연구에 의하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정서·행동 문제는 불안, 우울, 위축, 공포 및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피상적이고 거짓된 감정 표현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윤민주, 2018; 이경하, 2007; 이미애, 2004). 부정적 정서로 인한 주의력 저하(이경하, 2007; 최나리, 2015), 또래 관계에 대한 불신과 공격성, 언어발달의 문제 및 사회성 부족(박민선, 전종국, 2016; 정계숙, 이은하, 2010; 최나리, 2015)등이 나타나고 있다.</p> <p>불안정 애착에 대한 연구는 정서와 행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애착 형성이 청소년기 및 전 생애에 영향을 주는 정체성 구성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재경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 및 발달의 과정을 탐색하는 차별점을 두고자 한다.</p>
<p>박사논문의 관계</p>	<p>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과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혼란과 더불어 학업이나 외부로부터의 과도한 기대 등의 이유로 불안과 우울 등 심리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일반 청소년의 특성 외에도 다문화 청소년,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중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언어 미숙 등으로 인한 학업성취의 어려움 및 이주 과정에서 겪는 독특한 사회적 특성까지 여러 가지 외상 등 이중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이은정, 2019).</p> <p>연구자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진행하고자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p>

	<p>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애발달과정에서 경험한 불안정 애착과 트라우마,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에 앞서 아동기 불안정 애착과 정체성형성을 탐색하는 것은 학위논문에서 비언어적인 매체를 활용한 예술치료의 개입을 통해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애착형성과 정체성 형성 및 발달 단계 전반을 이해하고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선행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p>																																																																																																																				
<p>연구의 사회적 기여</p>	<p>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보고한 ‘2021 청소년 통계’ 자료로 본 청소년의 통계 요약을 살펴보면 2021년 청소년 인구(9~24세)는 830만6천 명으로 1982년 정점 1,420만9천 명을 찍은 후 감소 중이며, 학령인구(6~21세)는 763만8천 명으로 2029년에는 624만 9천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0년 다문화 학생은 전년 13만7천 명보다 7.4% 증가한 14만 7천 명으로 전체 초중고생 53만 5천 명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대에 진입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p> <p>초중고생의 2.8%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 및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개인의 심리·정서 지원 및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p>																																																																																																																				
<p>연구일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구수행일정</th> <th colspan="12">추진일정(2021년 12월~2022년 2월)</th> </tr> <tr> <th colspan="4">12월</th> <th colspan="4">1월</th> <th colspan="4">2월</th> </tr> </thead> <tbody> <tr> <td>서론</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이론적 배경</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연구방법</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사례연구 분석</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연구결과</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결론 및 논의</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r> <td>마무리</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연구수행일정	추진일정(2021년 12월~2022년 2월)												12월				1월				2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사례연구 분석													연구결과													결론 및 논의													마무리												
연구수행일정	추진일정(2021년 12월~2022년 2월)																																																																																																																				
	12월				1월				2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사례연구 분석																																																																																																																					
연구결과																																																																																																																					
결론 및 논의																																																																																																																					
마무리																																																																																																																					
<p>기타의견</p>	<p>참고문헌</p> <p>곽진영, 하은혜 (2015). 불안한 아동의 불안감소와 애착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Winnicott의 촉진적 환경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제22권 제5호(통권 80호)</p> <p>권미나, 이진숙(2018).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학령기 아동의 생각과 경험에 관한 연구.</p> <p>권윤정 (2016).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대상 집단놀이치료 사례연구-심리적 외상의 회복과정을 중심으로-</p> <p>김설리, 조남규 (2019).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과 에릭슨의 자아정체성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의미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제55호 57-73.</p> <p>김영순 (201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서울: 북코리아</p> <p>김은희, 김영순 (202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정체성 협상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5집 2호.</p>																																																																																																																				

김춘경 (2004). 『아동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남경인, 이미숙 (2006). 불안정애착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변화 사례연구-모래놀이치료를 중심으로-.

박민신, 전종국 (2016). 불안정 애착아동의 미술치료과정에서의 신뢰형성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82호).

박아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서울: 한국과학사.

여성가족부 (202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2021년 12월 6일 인출.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4).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윤민주 (2018).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정서 및 행동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연구. 아동가족치료연구. Vol.17.

이경하 (2007).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분리의 문제로 의뢰된 아동의 놀이심리치료 사례. 예술심리치료연구. 제3권 제1호. Vol. 3, No. 1, 103-136.

이미애 (2004). 미술치료가 불안정애착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정(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중단 연구 : 하위 유형별 우울의 변화와 예측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진경 (2016)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참여경험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나리 (2015). 불안정애착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제5권 제2호. Vol. 5, No. 2, 65-84.

최지원 (2013). 이야기치료 개입을 통한 아동의 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성원 외 (2010). 『아동심리와 상담』. 서울: 창지사.

Ansberry, C. M. 1999). The Struggle for self-esteem; A Comparative study between Adolescent females with Attachment Issues. Thesis, Ursuline College Graduate Studies.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Vol. 2). NY; Basic Books.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Narthan, T. (2006). Mon patient Sigmund Freud, PERRIN, Paris: Contemporary French Fiction.

Nieto. S. (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김영순 외 옮김, 성남: 북코리아

Rogers, C. (1959). A theory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 2. New york; Mcgraw-Hill.

Whelan, W. F., & Marvin, R. S. (2011). Caregiver p[atterns of results from the

	<p>Virginia foster care study (NH Award No. GC11456)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ontreal, Quebec, Canada.</p> <p>Winnicott, D. W. (1984). Deprivation and delinquency (C. Winnicott, R. Shepherd, and M. Davis E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p>
--	--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 이름 : 김혜미
- 연구과제명 : 재정착 난민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구기간	2021년 12월 20일 ~ 2022년 2월 10일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착 난민의 국제적 연구 동향을 탐색하고 재정착 난민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국내 재정착 난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가 긴 나라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p>
이론적 배경	<p>2. 이론적 배경</p> <p>2.1. 재정착 난민</p> <p>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재정착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난민법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재정착 난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1차 시범사업과 이후 연장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1기부터 7기까지의 재정착 난민이 한국에 정착했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 종료 후 정규사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p> <p>재정착 난민 관련 연구는 80% 이상이 미국, 캐나다 호주 3대 정착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큰 규모의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나라에서 양질(higher quality)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UNHCR, 2020). 재정착 난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재정착 난민 정책과 관련된 연구(정금심, 2021; 채보근, 2021; 황혜연, 2021)가 있으며 한국보다 5년 먼저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인 일본과의 비교 연구(신예진 외, 2013; 정금심, 2020), 1차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재정착 난민의 정착 실태 사례조사 연구(이호택 외, 2018) 등이 있다. 한국은 이제 막 새롭게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인 정착국가로 향후 많은 관련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p>2.2. 분석준거</p> <p>→ 난민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에서 사용된 분석준거 검토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분석준거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난민 분야의 동향 연구가 많지 않아서 이주민의 연구 동향 분석 준거로 범위를 넓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더 찾아본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연구방법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해외 논문의 검색을 위해 엡스코 데이터베이스(EBSCO)와 스코퍼스(SCOPUS)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p>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p> <p>첫째, 재정착 난민에 관한 해외 연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본다.</p> <p>둘째, 재정착 난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 등 아직 재정착 난민 수용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의 유의미한 연구를 발굴한다.</p> <p>셋째, 향후 재정착 난민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한다.</p>

<p>이전 연구와의 관계</p>	<p>재정착 난민의 언어능력 향상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진행했으나 해외 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이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박사논문과의 관계</p>	<p>박사논문을 재정착 난민의 생애사 연구로 진행하려 하고 세부 주제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재정착 난민은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비호국에서 정착국가로의 이동이라는 ‘전환’, 정착국가에서의 ‘적응’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 차원 차원에서의 생애사 분석을 제안한 만델바움의 이론에 맞는 연구참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탐색적 연구를 통해 학위논문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p>										
<p>연구의 사회적 기여</p>	<p>한국 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재정착 난민의 수용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상태이지만 모든 과정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어 온 만큼 향후 정규사업화를 위해서는 대중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p> <p>본 연구를 통해 재정착 난민 연구자들을 위한 해외 연구 동향의 흐름을 제시하고 재정착 난민의 사회적 기여 등 재정착 난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p>										
<p>연구일정</p>	<table border="1"> <tr> <td>2021.12.20 ~ 12.26</td> <td>분석 준거 마련 및 이론적 배경 작성</td> </tr> <tr> <td>2021.12.27 ~ 2022.1.2</td> <td>분석대상 연구물 검색 및 목록 작성</td> </tr> <tr> <td>2022.1.3 ~ 1.16</td> <td>원문 검색 후 최종 문헌 선정</td> </tr> <tr> <td>2022.1.17 ~ 1.30</td> <td>자료 분석</td> </tr> <tr> <td>2022.1.31 ~ 2.10</td> <td>연구결과 작성</td> </tr> </table>	2021.12.20 ~ 12.26	분석 준거 마련 및 이론적 배경 작성	2021.12.27 ~ 2022.1.2	분석대상 연구물 검색 및 목록 작성	2022.1.3 ~ 1.16	원문 검색 후 최종 문헌 선정	2022.1.17 ~ 1.30	자료 분석	2022.1.31 ~ 2.10	연구결과 작성
2021.12.20 ~ 12.26	분석 준거 마련 및 이론적 배경 작성										
2021.12.27 ~ 2022.1.2	분석대상 연구물 검색 및 목록 작성										
2022.1.3 ~ 1.16	원문 검색 후 최종 문헌 선정										
2022.1.17 ~ 1.30	자료 분석										
2022.1.31 ~ 2.10	연구결과 작성										
<p>기타의견</p>	<p><참고문헌></p> <p>신예진, 신지원(2013). 일본의 재정착 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32(2). 191-231.</p> <p>이호택, 이주양, 기은재, 김규희(2018). 재정착 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법무부·(사)피난처.</p> <p>정금심(2020). 재정착 난민 정책의 발전적 모델 연구: 자립과 통합 이론의 조화를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p> <p>한국과 일본의 난민 재정착 법제 비교 연구. 공법학연구. 21(2). 365-393.</p> <p>채보근(2021). 우리나라 재정착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실행 사례 및 적응 경험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p> <p>황혜연(2021). 사회통합을 위한 난민 재정착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p> <p>허영식, 강현석 (2018)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8(1). 3-32.</p> <p>UNHCR(2020). The Impact of Government-Sponsored Refugee Resettlement: A Meta Study of Findings from Six Countries.</p>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 이름 : 김혜미
- 연구과제명 :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Solidarity Experienced by Myanmar Students in Korea (미얀마 유학생의 연대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연구기간	2021년 12월 13일 ~ 2022년 2월 28일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유학생들이 한국 시민사회로부터 받아온 연대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p> <p>미얀마인들은 지난 2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해왔으나 지금까지 이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답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왔다. 반면, 군부독재의 억압과 학살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의 민중들은 미얀마 사태 발생 초기부터 미얀마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으며 5.18 민주화운동의 유가족들의 경우 앞장서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에게 지속적인 연대의 의지를 보내왔다. 본 연구를 통해 미얀마인들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p>
이론적 배경	<p>2. 이론적 배경</p> <p>2.1. 미얀마 유학생 현황</p> <p>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체류 외국인 중 미얀마인은 총 26,412명이며 유학생은 1,043명이다. 석사유학(226명), 박사유학(84명), 연구유학(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20대 초반의 학생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로 지칭할 수 있다. 21세기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은 2019년 홍콩, 2020년 태국, 2021년의 미얀마의 민주주의 시민운동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시민운동의 주축 축이 이른바 Z세대라는 점,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국제화된 연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으로 설명된다(정다운, 2021).</p> <p>2.2. 연대</p> <p>‘연대’의 개념은 그 빈번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해왔을 뿐 아니라 개념의 다의성 및 애매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서유석, 2013)는 한계를 갖는다. 연대 개념은 원래 ‘연대 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프랑스 법에서 유래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해왔다(Zoll, 2000).</p> <p>→ 이에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대의 개념을 찾고 이후의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p>
연구방법	<p>내러티브 연구로 3명의 미얀마 유학생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5·18 기념재단 및 민주화기념운동사업회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p>

기대효과 및 가설	<p>미얀마 유학생들은 군부 사태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로부터 충분한 연대와 지지의 경험을 해왔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이들이 경험한 연대가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 나타났는지,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국제사회 연대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p>
이전 연구와의 관계	<p>이전 연구의 연구참여자였던 재정착 난민들이 미얀마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미얀마 사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구의 주제로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이 경험하는 불안에 관한 연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p>
박사논문과의 관계	<p>박사논문의 연구방법을 생애사 연구 또는 내러티브 연구로 생각하고 탐색 중에 있습니다. 연구방법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p>
연구의 사회적 기여	<p>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미얀마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더 많은 시공간에서 연대와 지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p>
연구일정	<p>2021.12.13~12.19 내러티브 연구방법(자료분석) 탐색 2021.12.20~2022.1.9 이론적 배경 탐색, 질문지 작성, 연구참여자 모집 2022.1.10~1.23 자료수집(심층면담) 2022.1.24~2.6 자료분석 2022.2.7.-2.20 결과작성 2022.2.21-2.28 마무리 (2.28 END Submission)</p>
기타의견	<p><참고문헌> 김선옥(2015). 정치적 연대의 조건. 범한철학. 78. 295-321. 나현필(2021).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진보평론. 87. 145-160. 배주연(2021). 민주화의 기억과 아시아 연대: 한국, 홍콩,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이미지 참조와 순환. 민족문화사연구. 76. 71-102. 서유석(2013). '연대(solidarity)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논총. 72(2). 2-23. 한일조(2006).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연대의식과 교육적 과제. 교육철학. 30. 239-254. 홍은영(2020). 다문화 사회에서 '연대(Solidarity)' 개념의 비판적 성찰과 교육의 과제 - 하버마스의 이론과 '인종주의 비판'의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2(2). 159-183. Libal, K., kashwan, P. (2020) Solidarity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Human Rights. 19(5). 537-546. Zoll, R. (2000). Was ist Solidaritaet heute?. Suhrkamp/Frankfurt am Main (최성환 역: 2010.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한울).</p>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이원선 (석사 2차) / 교신 저자: 정상우 교수님
- 연구과제명: 방문취업 동포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제)

연구기간	2022. 02. 01. ~ 2022. 05. 3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본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동포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분석하고 동시에 동포 자녀에게 맞춤 교육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p> <p>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 중 방문취업 동포는 16.7%를 차지한다. 방문취업 동포의 의의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한민족이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 뚜렷하진 않지만, 거주국에서 아직도 한국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H-2 비자를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장기체류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로의 이주가 진행되어(최영미, 2019) 방문취업 동포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p> <p>「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 방문취업 동포 자녀들도 중학교까지 공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된 체류자격과 한국문화에 노출된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보다 방문취업 동포로 한국에 먼저 체류하고 있는 부모를 따라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은 배경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춘 세밀화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의 자녀세대 양성을 위해 한국 사회 적응과 교육에 있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p>
이론적 배경	<p>「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은 2019년 7월 2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제3조에 따라서 3세대까지만 동포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직계비속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청소년들도 동포로서의 지위를 얻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의하면 방문취업 동포의 자녀들은 제3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p> <p>한편, 윤향희(2021)에 따르면 고려인 청소년 8명의 설문 대상자가 모두 공통적으로 한국 학교에 들어간 이후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저학년으로 입학할 때보다 고학년으로 입학할 때 교육의 격차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컸다고 한다. 또한 좌동훈(2014)에서는 출신 국적에 따라서 각 요인에 따라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불안함, 출신국 문화 정체성, 한국문화 접촉 기간, 사회문화 적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p> <p>이렇게 방문취업 동포 자녀들이 한국 사회로의 적응에 있어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지식적인 부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공교육 내에서도 다방면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부모 모두 재외동포로서 외국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방문취업 동포 청소년들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p>

	<p>되지 않는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다. 물론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하여 공교육이 나, 공교육 내의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난민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법」에서도 교육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대상을 외국국적동포 자녀까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p>
<p>연구방법</p>	<p>본 연구는 문헌들의 고찰을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들의 이중적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그 자녀들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한 뒤, 방문취업 동포의 이중 법적 지위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당위성을 보이고자 한다.</p>
<p>기대효과 및 가설</p>	<p>외국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동포들은 사회적 지위와 법적 지위로 인해 정주민 뿐만 아니라 같은 위치의 외국인들에게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집단은 지역사회에서 게토화 현상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정주민과의 갈등과 단절은 심화된다. 이와 더불어서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로 분류되는 방문취업 동포 자녀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습득의 더딤 뿐만 아니라, 입국하고 난 후 학교를 입학하기 전의 공백 기간, 같은 연령의 또래들과 학습 불가능, 청소년 예민한 시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 어려움을 느껴 학습에 대한 포기나 학업 중도 탈락의 결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연구결과가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와 그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p>
<p>이전 연구와의 관계</p>	<p>윤향희(2021)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방문취업 동포 자녀들은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생활의 적응력이 낮았고, 좌동훈(2014)에서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출신국의 문화 정체성이나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한국 사회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방문취업 동포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그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자 한다.</p>
<p>석사논문과의 관계</p>	<p>석사학위논문의 연구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는 연구 대상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기에 H-2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에도 해당하는 부류임으로 그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p>
<p>연구의 사회적 기여</p>	<p>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로 발전해나가고 있으나, 사회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비해 정주민들의 인정과 의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통계에서 보더라도 정주민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비해 다문화 학생들은 계속 증가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우리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집단들의 게토화가 아닌 정주민 지역사회와의 더불어 나아가기를 바라며, 최종적으로 미약하게나마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p>

연구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월 01일 ~ 2022년 3월 15일 연구 주제에 대한 정리, 이민정책의 이해, 정책이론에 대한 기본 지식 연구, 선행연구 탐색 - 2022년 3월 15일 ~ 2022년 4월 30일 초안 작성 및 수정 - 2022년 5월 01일 ~ 2022년 5월 31일 수정·보완 및 투고
기타의견	교수님과 참여원생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바탕으로 고려인 청소년에 한정 짓는 것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제를 바꾸고 대상을 확장하게 되었음.

참고문헌

- 윤향희, “고려인자녀의 국제 이주에 따른 한국생활적응 지원방안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제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02. pp.2405~2418.
- 이진영, “재외동포의 요구사항 표출과 재외동포정책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4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12. pp.95~122.
- 좌동훈,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2014.01. pp.97~126.
- 최영미·이지선, “경기도 거주 고려인 생활실태 및 정착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12. pp.1~188.
- 최윤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법학연구소, 2021.06. pp.3~30.
- 테레사편,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1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10. pp.891~913.
- “2021 10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2021 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KARIMOVA NIGORA
- 연구과제명 : 인천광역시 다문화 중심지로 변모하는 함박마을의 작금

연구기간	4개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으로 이주한 CIS출신 고려인들이 함박마을이라는 동네에서 모여 정착하게 된 역사와 계기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제 이주를 겪고 2세대를 넘어 모국어인 한국어를 상실하게 된 고려인은 한국을 역사적 모국이라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귀환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에 관심을 보인다. 이들이 함박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한 계기는 본 고장이 현재 그들이 주로 일하는 남동공단과 가깝다는 경제적 이유였다. 함박마을의 외국인 인구 증가는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였기에 정책과 관리청 등에서 아직까지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 그 지역의 선주민인 한국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는 주로 소통 부재와 문화 차이 때문이다. 선주민들은 고려인들의 방역 수칙 위반과 마을의 환경 문제, 그리고 외국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한 지역의 슬럼화나 계토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사회적응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 있다. 또, 이 요소들의 중요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원민들은 동포와 외국인들에 대해 편견을 깨고 아울러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야 하며 추후에 질적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타당성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p>
이론적 배경	도시생태학 이론(urban ecology theory), 재기적 종족성론(resurgent ethnicity), 장소 층화론(place stratification theory), ‘세계도시론(global city theory)’,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
연구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적연구의 심층면접 진행을 위해 고려인 주민 나이, 직업 등 신분 별로 기준 구체화. 2. 질문지 준비. 3. 너머문화원 협조를 받아 이주민과 연결 4. 면접을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코로나 사태 파악 후 일정 정함.
기대효과 및 가설	함박마을이 또 하나의 고려인마을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 슬럼화 또는 계토화 현상 우려, 선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갈등 원인 파악하고 해결 방법 제시
이전 연구와의 관계	없음.
박사논문과의 관계	없음.

연구의 사회적 기여	<p>함박마을의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평화적인 공존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창을 만들기. 해당 동네 고려인 이주민을 주변화 아닌 통합 쪽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기여.</p>
연구일정	<p>미정</p>
기타의견	<p>없음.</p>

2022-1 연구계획서

- 연구자이름 : 손효한(SUN XIAOHAN) 석사 1차
- 연구과제명 : 결혼이민자 · 귀화자의 취업실태를 통해 본 시사점

연구기간	1개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연구목적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 귀화자들의 취업직종, 임금수준, 정책지원 상황 등 조사결과를 비교해 취업실태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정부가 결혼이민자들의 실태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색해보고자 한다.</p> <p>연구 필요성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따르면 2020년 결혼이민자 인구수는 168,594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37,878명으로 전체의 81.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남성은 30,716명으로 18.2%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별 결혼이민자 · 귀화자 중 50대 이하는 78.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p> <p>위 통계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한 커플 중 80%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사실도 확인된다. 한편, 한국사회의 내국인 여성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저임금, 비정규직 종사 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은 의사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인종차별 등 사회적 편견으로 더 열악한 취업조건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p> <p>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차는 남편 연상 부부가 75.7%로 가장 많고, 남편이 아내보다 10살 이상 많은 부부의 비중은 34.2%로 다수를 차지한다¹⁾. 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근로가 가능 연령을 넘어서 근로활동이 중단될 경우, 결혼이민여성은 혼자서 양육비나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민여성이 근로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놓이거나, 근로활동마저 실패할 경우 저소득층이나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며, 경제적 하위 그룹의 재생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무엇보다 이들 가정이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하면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안정적 정착기반이 저하를 불러오며 사회통합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이규용,2011).</p> <p>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부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여러 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제1차, 2차 기본계획을 거쳐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일정정도 효과를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와 부족함이 존재한다.</p>
이론적 배경	<p>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세계화를 넘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노동력 부족, 한류 등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구직, 여행, 이민,</p>

	<p>유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체류 외국인인 203만 명 정도였지만 2019년만 하더라도 체류 외국인 수가 252만 명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 가까이 차지했다²⁾. 이처럼 한국사회는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으로 전통적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p>
연구방법	<p>1) 2009년~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문화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 결혼이민자·귀화자 취업여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 분포, 결혼이민자·귀화자 종사자 지위, 결혼이민자·귀화자 월평균 임금 등 통계를 통해 지난 9년 간 결혼이민자·귀화자 경제활동 실태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p> <p>2) 다문화가족정책 1차, 2차 기본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가족정책 3차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p>
기대효과 및 가설	<p>2009년~2018년까지 지난 9년 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이 상승할 것으로 추측되고 정부가 1~3차에 걸쳐 수립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점차 보완되면서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은 언어소통 문제 및 차별 등 불공평한 대우가 존재함으로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일반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설한다.</p> <p>또한 정부가 수립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책효과를 나타나며 실제에 세부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가설한다.</p>
이전 연구와의 관계	없음.
박사논문과의 관계	없음.
연구의 사회적 기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취업실태를 통하여 그들의 소득, 종사자지위 등 경제 현황을 알아보고 사회통합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일정	없음
기타의견	없음.

1)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36.0세, 아내는 29.2세로 전년대비 남편은 0.8세 감소, 아내는 0.8세 증가,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차는 남편 연상부부가 75.7%로 가장 많고,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4.2%로 전년대비 7.8%p 감소(통계청,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 2020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036,075명으로, 2019년 대비 19.4%(488,581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체류외국인이 2019년 대비 42.9%(367,101명)의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법무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